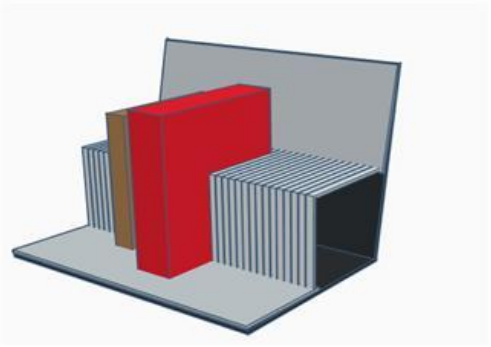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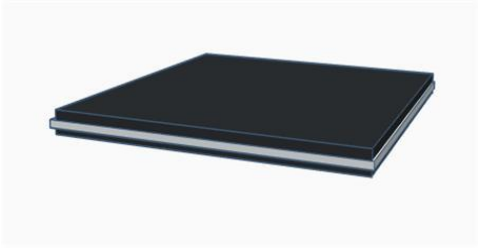
【서식 4, 5】 작품요약서

작품명	책꽂이 이제는 들고 다니자!	출품분야	고
		출품번호	3065

구 분	성 명	소 속(학교)	학 년(직위)
출 품 자			
지도교원			





1. 발명동기

가. 동네 도서관에서 책장정리 업무를 맡게 되면 북엔드가 있어도 항상 수많은 책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 책들이 쓰러져 책 정리에 불편함을 느꼈다.

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면 문제집이 차곡차곡 세워 놓아도 결국 미끄러지게 된다.

2. 작품내용

가. 플라스틱판을 이용하여 책꽂이의 중간부분을 세우고 이 부분에 책이 들어오게 되면 책의 무게로 인해 플라스틱판이 책꽂이 틀에 붙게 되고 또 책은 인접한 곳에 서 있는 플라스틱판으로 인해 책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책이 비치되었다가 다시 빠지게 되면 플라스틱판은 그대로 틀에 붙어있게 된다. 이때 판 안쪽에 위치한 막대를 당겨 올리게 되면 한꺼번에 플라스틱 판이 올라와 처음 책이 꽂혀 있지 않던 상태로 돌아와 책꽂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제작결과

가. 작품에서 플라스틱판은 여러번 구부렸다 펴도 유연하면서 또 구부러졌다가 조금만 당겨올려도 다시 펴질 정도로 복원력이 있어야한다. 연질아크릴판의 경우에는 인접한 책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강하고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했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펼치면 입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플라스틱 판이 올라가도록 하드 보드지
의 중간 위치는 붙이지 않고 윗부분과 아랫부분만 플라스틱 판과 고정시켜서 입체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플라스틱 판은 한번눌러지게 되면 다시 스스로 올라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올려 줘야하는데 이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철막대를 작품의 안쪽에 심어서 좀 더 간편하게 올릴 수 있게 했다.

나. 작품의 기대효과

이 책꽂이는 다른 책꽂이들과는 다르게 큰 부피를 가지고 있지않아서 책꽂이의 휴대가 가능하다. 또 책꽂이가 항상 책들을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작업공간을 깨끗이 유지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책꽂이의 독특한 모양을 이용해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서욕구 증진 등 다양한 부가효과를 가져온다. 작업공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일이나 서류철을 쉽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